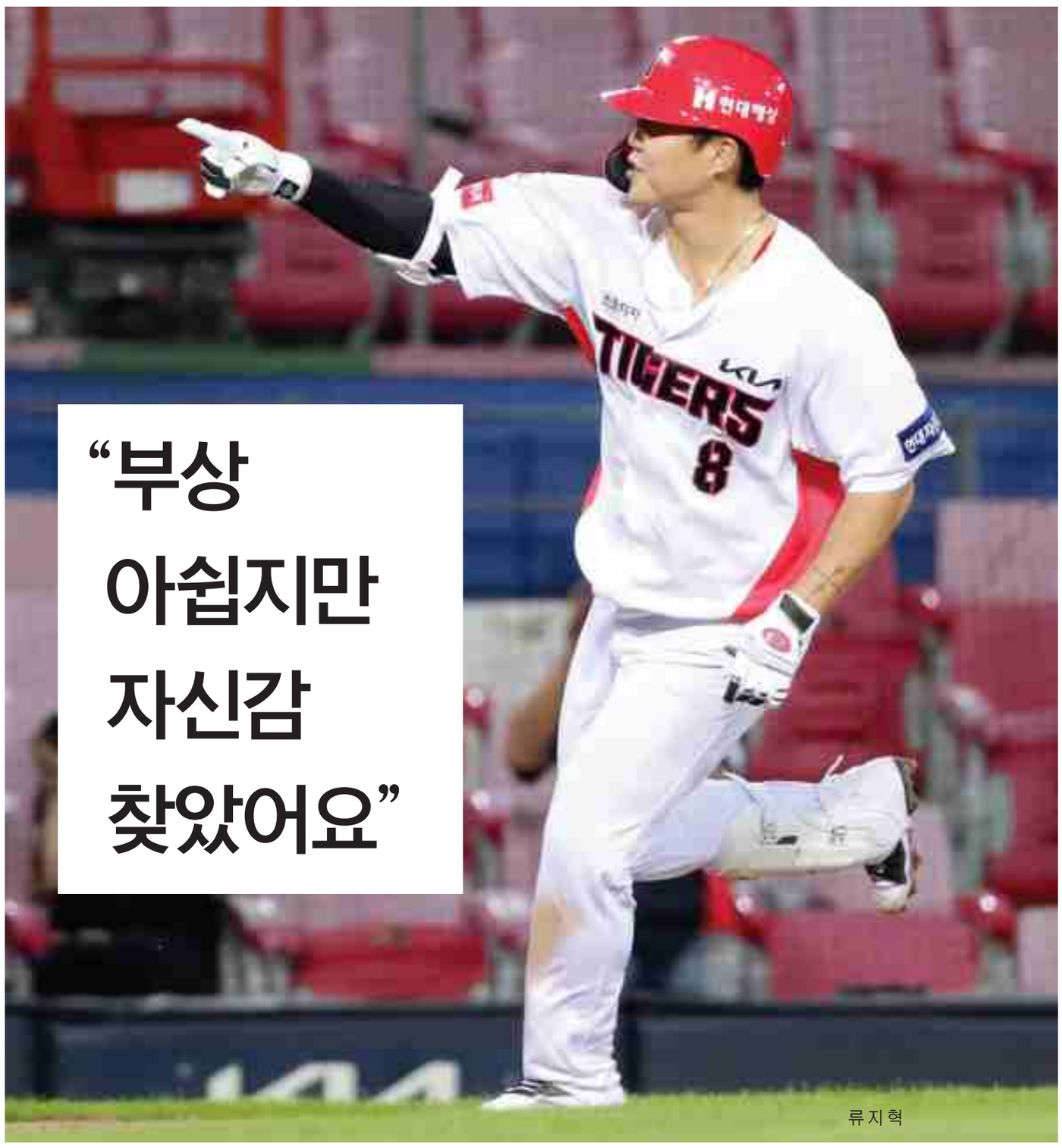

류지혁

KIA 류지혁, 특급 백업서 주전으로 발돋움 했지만 잦은 부상에 ‘시름’

아쉬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얻은 류지혁이 2022시즌을 올려본다.

이제는 ‘KIA 타이거즈’라는 이름이 익숙해진 류지혁이다. 그는 지난 2020년 투수 홍건희와의 트레이드로 두산 베어스에서 이적했다.

6월 10일 KT전을 통해 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올랐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3안타를 장식했다. 좋은 수비도 선보이면서 ‘특급 백업’에서 KIA의 새로운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것 같았지만 류지혁의 2020시즌은 짧았다.

그는 이적 후 5번째 경기였던 6월 14일 SK(현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군이 됐다. 그리고 복귀를 위한 점검 무대였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다시 부상을 당해 기대했던 2020시즌이 허무하게 끝났다.

올 시즌에도 류지혁은 완벽한 시즌을 보내지는 못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허벅지·내복사근 부상으로 세 차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88경기에 나선 류지혁은 올 시즌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가장 먼저 ‘부상’을 꼽았다.

그는 “많이 아쉽다. 큰 부상은 아닌데 작은 부상으로 몇 차례 빠졌다”며 “요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잘 될 때 부상이 온다는 것이다. 감 좋을 때, 잘 될 때 아팠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아쉽다. 아파서 빠지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구성’이 강점이었던 만큼 새 팀에서 이어진 부상은 류지혁에게 큰 숙제가 됐다.

그는 “다쳐본 적이 없었다. KIA와서 첫해는 햄스트링 부상이 크게 와서 어쩔 수 없이 통으로 시즌을 날렸다고 하지만 올 시즌에는 작은 부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겼다. 내년에는 절대 부상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얻은 건 수확이다. 달라진 팀 내 위상으로 차분하게 경기에 나서면서 그의 야구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류지혁은 “올해 부상 때문에 부담을 느꼈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떨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겨울에 준비 잘하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면서도 “계속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방망이가 전보다 여유가 생겼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수비도, 방망이도 자신 있다. 두산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밝혔다.

또 “포지션에 대한 욕심은 없다. 1루를 볼 때는 팀 사정상 보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루, 3루, 유격수 모두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감을 얻은 시즌, KIA는 덕아웃 리더를 얻었다. ‘팀’을 이야기하는 류지혁은 선후배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을잔치’의 단골팀이자 ‘화수분 야구’로 이야기되는 두산에서의 경험이 그 바탕이 됐다.

류지혁은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중간이다. 위에 형들, 동생들 소통이 잘 돼야 한다. 팀이 먼저가 돼야 성적이 된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며 “선수들 모두 팬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나같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면, 팀이 잘되고 개인 성적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본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성적이 나는 팀은 이유가 있다. 개인 성적도 그렇지만 팀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위아래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은 경기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 우리 선수들도 모두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깨닫는 경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퓨처스리그에 FA 제도 신설

등록일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 선수

KBO리그 퓨처스리그에 FA 제도가 신설된다. 야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리그 관계자의 등록·활동이 제한된다.

KBO가 26일 2021년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 종료 후 퓨처스리그 FA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의 전력 보강을 위한 방안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총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퓨처스리그 FA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이면 해당 된다.

퓨처스리그 FA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KBO 리그 145일 이상 등록 선수, 기존 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뒤 5일 이내 신청한 선수에 한해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진다.

각 구단은 타 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선수와 최대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보상금으로 영입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소속구단에 지급하게 된다.

계약금은 없지만 퓨처스리그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를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FA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별도 보상금 없이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KBO 규약에 총재의 조사권한에 관한 총칙 규정,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학교 폭력·인권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KBO 선수계약서를 개정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생존 경쟁’ 시작

K리그1 2021 파이널 라운드 31일 강원 상대 첫 경기

31일 안방에서 광주FC의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K리그1 2021 파이널 라운드의 일정과 대진이 확정됐다. 30·31일 열리는 34라운드부터 12월 4·5일 38라운드 최종전까지 팀별로 5경씩 치른다.

‘파이널 A’에 진출한 상위 6개 팀은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고 경쟁한다. ‘파이널 B’ 그룹의 6개 팀은 잔류를 위한 전쟁을 벌인다. 12위는 자동 강등되고, 11위는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파이널B 그룹의 최종 38라운드가 12월 4일 오후 3시 먼저 진행되고, 파이널 A그룹의 마지막 경기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동시에 열린다.

광주는 앞선 수원FC 원정에서 5연패에서 탈출했지만 최하위(승점 32)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감했다. 9위 FC서울, 10위 강원FC, 11위 성남FC가 승점 37점으로, 5점 차 밖에 있다.

광주는 31일 오후 7시 강원을 상대로 파이널라운드 일정에 돌입한다. 11월 3일 오후 7시 서울과 역시 안방에서 경기를 치른 뒤 원정 2연전에 나선다.

11월 7일 오후 2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전 첫 승을 노리고, 27일 오후 4시 30분에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만난다. 그리고 12월 4일 오후 3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마감한다.

한편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경기는 11월 6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두 팀은 나란히 승점 64점을 기록하고 있고, 전북이 득점에서 4점 앞서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엄원상 24라운드 MVP…엄지성 베스트 11

광주FC의 5연패를 끊은 ‘엄듀오’ 엄지성과 엄원상이 24라운드 베스트 11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엄원상은 MVP의 영예도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6일 K리그1 2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수원FC와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1 승리를 합작한 엄지성과 엄원상이 명단에 포함됐다.

엄지성은 전반 18분 엄원상의 땅볼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엄지성의 골을 도운 엄원상은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김종우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엄원상은 이날 자신의 특기인 스피드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MVP에 등극했다.

광주는 이날 이희균의 골까지 더해 유스 출신 3인방의 활약 속에 5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편 24라운드 베스트팀에 FC서울이 선정됐다. 서울은 강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강상희, 팔로세비치, 윤종규, 조영욱의 골로 4-1 승리를 거두고,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엄원상 엄지성

베스트 경기로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경기가 뽑혔다. 이날 두 팀은 후반에만 2골씩 주고받으면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5일 싱가포르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 H조 한국과 필리핀의 경기를 마친 황선홍(왼쪽) 감독. /연합뉴스

U-23 축구대표팀 ‘황선홍호’ 순조로운 출발

첫 경기 필리핀전 3-0 승리

남자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황선홍호’가 첫 공식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25일 싱가포르의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리핀과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 H조 1차전에서 후반에만 나란히 1골 1도움을 올린 이규혁(충남아산), 고재현(서울이랜드)과 쐐기골을 터트린 박정인(부산)의 활약을 엮어 3-0으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지난달 23세 이하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이었다.

총 11개 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예선에서 각 조 1위, 그리고 2위 팀 중 상위 4개 팀만 개최국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내년 6월 열릴 AFC U-23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한다.

한국은 인조잔디 구장인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에서 28일 동티모르, 31일 싱가포르와 예선전을 이어간다.

황선홍호의 1호 골 주인공은 왼쪽 측면 수비수인 이규혁이었다.

공격에 가담한 이규혁이 왼쪽 측면에서 고재현이 올린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돌려놓아 귀중한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대표팀은 더욱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후반 16분에는 박정인이 페널티아크에서 날린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이후 조상준을 이동률(제주)과 교체하고 나서 1분 만인 후반 27분 추가골이 터졌다.

이규혁이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수 사이로 절묘하게 찔러준 공을 골 지역 오른쪽에 노마크 상태로 있던 고재현이 편안하게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연합뉴스